



전주 완산문화원 산속 현장에서 목재에 먹칠하고 있는 고택영 대목장.

"대패로 다듬고 끌로 구멍을 뚫어서 목재를 짜 맞출 때 기본은 말로 다 못해, 특히 기둥이 제 구멍에 속속 들어맞을 때는 절로 신명이 흘러넘쳐."

7월 13일로 미수(米壽, 88세)를 맞는 고택영(高宅映, 1913년)은 199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으로 지정된 그는, 60여 년을 문화재급 고건축 공사 현장을 지키며 목수로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장인이다.

"전북 부안군 실상사 신축 현장을 갔더니, 팔손이 넓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녀를 덮고 선 고 대목을 보았다"거나, "경북경주 보수공사에서 고 대목의 이름 석자가 기록된 부재가 나왔다"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전언만 보아도, 그의 면면을 짐작할 수 있다.



전주 정혜사 사천왕문에서 바라본 대웅전. 고택영 대목장이 제자 김명성씨와 함께 88년에 지은 대웅전은 유연한 처마곡선으로 유명하다.

“깎고 다듬다 보니 이젠 ‘나무와 귀엣말’”

米壽 맞는 고택영 대목장

손길 닿은 고건축 150여채
문화생 20명 '수리 기능자'
“60여년 외길 후회없어요”

고택영 대목장의 손길 닿은 고건축물

1964년	서울 조계사 대웅전 보수
1966년	전남 김천 무위사 극락전 해체 보수
1968년	경기 고양 북한산성 대서문 복원
1970년	전남 영암 도갑사 해탈전 해체 보수
1972년	서울 경복궁 장경전, 심화당 보수
1973년	서울 남대문 해체 보수
1975년	경남 함안 해인사 팔만대장경 광교 보수
1977년	전남 구례 회암사 대웅전, 영부전, 천원문, 일주문, 금강문 해체 보수
1978년	전남 승주 송광사 국사전 해체 보수
1979년	서울 경복궁 경회루 보수
1981년	경북 안동 봉정사 대웅전 해체 보수
1985년	충남 논산 흥국사 대웅전 신축
1988년	전북 김제 갈산사 대적광전 복원
1989년	전북 전주 정혜사 대웅전 신축
1992년	전북 정읍 내장사 선원 신축
1993년	전북 정읍 내장사 도덕암 대웅전 신축
1993년	충남 연기군 보림사 선원 신축
1995년	전북 부안 상항사 대웅전 신축
1996년	전남 정읍 보림사 대적광전 신축
1998년	전남 화순 용암사 대웅전 신축
현재	전북 부안 실상사 전각 복원 중

〈통감점묘〉를 즐겼을 때 도장을 과고 장기간을 만들던 화동(學動), 간혹 “크면 목수가 되려나”하는 주변의 ‘우러 섞인 칭찬’을 듣는 아이였던 고옹이 목수 일에 뛰어든 것은 스물일곱 먹던 해인 1941년이었다.

“부안의 큰 목수 심태집 선생이 동네에서 끌 구멍을 뚫는 사람을 찾기에, 내가 나섰지. 그런데 일 하는 걸 보더니 10년 한 사람보다 잘한다며 함께 일할 생각 없냐 하는 거야.” 심 씨는 그의 연장 다루는 손끝에서 뿜어낸 솜씨를 본 것이다.

그 후 고옹은 전북 지역에서 심태집, 심사임 씨 등을 따르며 한옥 짓는 일을 배웠고, 1954년 서울로 와서 목수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궁중목수의 전통을 계승한 조원재 선생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상경 후 지금의 오정동에서 한옥을 보수하는 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누군가 나타나 서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쿠작정 서쪽으로 갔더니 조계사 보수 현장이야. 그곳에서 조원재 선생을 만났지.”

조계사 조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를 맡고 있었던 조 씨는 1982년 작고한 대목장 이공규 씨와 함께 경북경주 중건의 중흥을 도맡았던 구한말의 대목장 최환식 선생의 맥을 이은 궁중목수였다. 연장만 다루던 고옹이 조 씨를 만나 설계도면 작성법, 나무짜는 법, 서까래 거는 법 등 고건축 이론과 실기를 배우며 비로소 대목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고옹이 말하는 대목으로서의 매력은 먹칠하는 일과 처마 곡선을 잡는 일이다. 먹칠하는 것은 목재를 깎고 다듬는데 기본이 되는 선을 긋는 것인데, 대목이 목재의 형태에 따라 먹칠 놓으면, 목수는 먹 선을 따라 기둥, 보, 공포 등을 만든다. 대목은 나무와 귀엣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그 쓰임새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뜻하는 말이다.

처마곡선은 건물의 생명이다. 이런 곡선은 설계도면이나 이론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직 대목의 경험과 기능에서 이루어진다. 고옹은 “마음 속으로 도면을 짜고, 자연에 순응하



전주 완각사 극락전과 그곳 출입문에 조각된 꽃무늬 문살.



면 저질로 곡선이 된다”고, 그 비결을 설명했다. 이는 집을 짓거나 보수할 때 지세(地勢)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그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고옹의 손길이 닿은 고건축은 100여 건 150여 채에 이른다. 사람로는 영암 도갑사 해탈문, 함안 해인사 장경전고, 강화 전등사 원통전, 구례 회암사 대웅전, 김제 갈산사 대적광전, 전주 정혜사 보광전, 승주 송광사 국사전,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 등이 있고, 일반 고건축으로 서울 남대문과 경복궁, 전주 촉서루, 파주 자운서원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현장을 누비며 전각을 세우고 고쳤지만, 정작 전북 부안에 있는 그의 집은 시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농가(農家)였다.

“나무짜야 돈 벌 생각해본 적도 없어. 돈에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천해지고 제 일도 제대로 못해. 목수는 제대로 지은 집의 상량문에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야지.”

이런 생각 탓일까, 고옹은 자신에게 전각의 보수나 신축을 부탁한 사람들과 매년 돈보다는 ‘적심’의 많고 적음으로 다루었다. 적심이란 서까래를 누르기 위해 그 위에 올렸던 장작 등을

말하는데, “한옥은 지붕을 잘 눌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마무리 부재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목재 보다는 흙을 선호한다.

적심을 놓고 다루는 과정에서 고옹의 공일을 깎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고옹은 집을 잘 짓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양보했다. 그래서 국가 지정 대목장이라는, 그것도 국내 4명의 목수에게만 주어질 타이틀이 있는 그이지만, 그의 살림살이나 옷매무새는 산골 촌부의 다름 바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한평생 목수 일을 하며 얻은 것도 있다. 바로 그를 따르는 문화생들이다. 이 중 김인선, 전명복, 장준중, 김영성, 이의찬 등 20명의 문화생들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문화생이 많은 것은 조용하고 원만한 성품 탓도 있지만 기술을 전수하는 데 망설이지 않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제자들의 창의력까지 수용하는 교육 철학 때문이다.

고옹은 늘 제자들에게 “스승이 가르쳐준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 멋스럽게 소화하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자와 함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상의하고, 의견을 존중하려 애쓴다. 고옹의 문화생 20여 명이 ‘해강회(海峯會)’를 조직하고, 스승의 살가운 가르침에 보답하며 7월 13일 ‘미수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고옹의 따뜻한 품성의 당연한 결과이다.

“선생님은 나무의 쓰임새를 정하고 깎는 기술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목수나 전통가옥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른 분”이라는 해강회 총무 김영성(문화재 수리기능자) 씨는, 선생님의 작품을 모으고, 여기에 지인들의 평가를 담은 책과 선생님의 모든 작품에 대한 실측도면과 학술적인 평가를 수록한 책, 두 권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목이 되려면 기예도 출중해야 하지만, 수심이 명목의 목수를 원만하게 다스릴 수 있는 인격 수양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고택영 대목장은 오늘도 부안군 실상사 신축 공사 현장을 이끌며 전각을 세우고 후배를 가르치며 목수의 길을 회향하고 있다.

글=오종욱 기자 gosoo@buddhaha.com
사진=고명배 기자 ygjo@buddhah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오색죽

“네 년이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소녀는 이미 이수화(李秀華)과 백년 가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기생 주재에 무슨 정조 타령이란 말이나, 나 신광수(申光秀)가 손바닥만한 영월 고을의 기생 하나를 마음대로 못한 대서야 될 말이며, 내 경춘이 너를 죽여서라도 수청을 들게 하고야 말겠다.” 이 이야기는 춘향전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남원의 춘향은 소설 속의 가공 인물을 그림자처럼 그려낸 것이지만, 강원도 영월의 경춘(敬春)은 실제 인물이었다. 소설 〈춘향전〉의 실제 모델이 바로 경춘이었던 셈인데, 경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다.

경춘의 원래 이름은 노옥(魯玉). 그녀의 가난한 선비 집안이었다. 평소 노산군(魯山君)을 흠모해 딸 이름까지 노옥

당뇨·간장 질환에 효과

이라 이름 지은 그녀의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열 마흔의 추월(秋月)이라는 기생집에서 길러졌다. 재색을 겸비한 기생으로 성장한 노옥은 호심이 대단했다. 그러던 중 영월부사로 부임한 이만희 아들 이수화(李秀華)와 정이 들었다. 그러나 이만희가 다시 한 양으로 영전하자, 그녀는 이수화와 잠시 이별하게 되었다.

그런 노옥이 신광수의 협박과 폭행에 견디다 못해, 부모의 산소를 찾아 하직인사를 고하고, 이수화가 있는 한 양 땅을 바라보며 금강정 낙담암에 들

을 먼지고 말았다. 그녀의 나이 16세 때 일이다. 그 해 승정원의 일기를 보면, 이 일로 인해 경춘을 기리기 위해 1795(정조 19년) 순찰사 손암(孫岩)이 금강정 낙담암에는 ‘敬春遺物節之處’라는 글씨가 남아있다. 그 후 영월은 봄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갈 때면, 다섯 가지 오색죽을 준비하여 강가에 뿌리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경춘의 넋을 위로했다고 한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쌀 1컵씩, 부재료비트즙, 단호박 으갠 것, 속죽, 검은깨 간 것, 대추 간 것, 산마가루 각 ¼/2컵, 물 6-7컵씩

요리법 ① 쌀은 2시간 이상 불려서 물기를 뺀다. ② 바닥 두터운 냄비에 쌀과 물을 붓고 따뜻해지면 부재료를 넣고 저어가며 끓인다. ③ 한 소금 끓으면 불을 줄여 서서히 끓인 뒤 죽이어나 붉은 소금을 곁들인다.

효능 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간장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좋다. ② 임상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의 평상식으로도 아주 좋다.